



‘엔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

22개 기업 담합 35건 소비자피해 4조 넘어

日 등 선진국 편드로 전환 바람직

연일 코스피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추가급등에 따른 부담 감으로 단기 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금리인하·중국 경기 진척·엔 캐리 트레이드 침산 등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주식시장의 타격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경제환경을 반영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日 추가 금리 인상 단행엔 엔화 강세 환차익 가능성 등 분산 투자 하도록

일반적으로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란 저금리 상황의 국가 화폐로 조달한 자금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의 통화·주식·부동산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저금리 국가의 자금을 조달할 때는 해당 국가의 화폐가 투자대상 국가의 화폐로 환전될 것이므로 외환시장에서 가치가 떨어져 약세 압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저금리 국가의 금리가 오르거나 투자대상 국가의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떨어져 자금을 상환할 때에는 저금리 국가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

외환시장에서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일본의 금리와 엔 캐리 트레이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최대 1조달러에 달해 이 자금이 청산될 경우 한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주가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월말 글로벌 주가 급락을 초래한 ‘차이나 쇼크’의 이면에는 일본의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움직임도 작용했다. 미국의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헤지펀드로 대표되는 대형 국제 투자가본이 저금리에 가까운 일본의 자금을 빌려 미국·영국·한국·아시아 주요국 등 일본보다 금리가 높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유행했던 엔화대출의 경우 대표적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으로 볼 수 있다.

데 일조했던 엔화 자금이 대거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아시아 신흥시장의 유동성 약화에 따른 주가하락 및 엔화에 대한 수요 증가로 엔화 강세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 해외펀드 강세로 인해 지난해부터 중국·인도·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해외펀드 비중을 줄이고 국내 주식형 펀드나 일본을 주축으로 한 선진국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본 주식형 펀드나 리츠(REITs)에 투자해 환헤지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 엔화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분산 차원에서 투자를 고려할 만 하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본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추가적인 엔 캐리 트레이드 침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과잉 유동성을 공급해 자산 버블을 만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03년 이후 30대 기업에 속하는 22개 기업의 담합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4조7천4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도 자료에 근거, 22개 기업(30대 기업중 공기업이거나 공기업이 최근 민영화된 8개 기업 제외)의 담합 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피해액은 담합 기간 중 해당 상품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상적인 피해액 산출과 같은 방식이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담합행위는 모두 35건으로 담합에 연루된 모든 기업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액의 10%에도 못미치는 436억6천만원에 불과했다.

22개 기업의 64%에 해당하는 14개 기업집단이 1번 이상 담합행위를 했으며 SK(9), LG텔레콤, CJ(9)는 2회 이상의 담합행위가 적발됐지만 한진, 하이닉스반도체, 동부, 현대, 신세계, GM대우, 하이트맥주, 대우건설은 같은 기간 담합 행위가 1건도 없었다.

1개 기업당 과징금은 평균 76억원이었으며 SK가 436억6천만원, 두산이 405억9천800만원, LG가 384억7천760만원으로 비교적 많았다.

(연합뉴스)

참치 먹고 왜 배 아픈가 했더니...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 팔아

심해성(深海) 어류인 ‘기름치’(Oil Fish)가 ‘참치’로 둔갑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 냉동 ‘기름치’(아래 사진 참조)를 단순 절단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제품명을 ‘참치’나 ‘백마구로’로 허위 표시하거나 원재료명을 ‘냉동 참치’로 속여 중간 도매상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D참치(경기도 김포)와 D수산(부산광역시 구 송정동), Y수산(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기름치는 주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선으로 음식점에서 횡간유이나 구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하지만 기름치는 인체에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Wax ester)이 많아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일부 민감한 사람들에게 복통이나 설사, 복통과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연합뉴스)

한전 공채 10~20% 저소득층서 뽑는다

국내 최대 공기업이자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있는 직장인 한국전력이 공채인력의 10% 이상을 저소득 소외계층 출신 가운데서 뽑을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3일 올해 하반기 공채채용시 저소득 사회소외계층 지원자에게 선발인원의 10~20% 선을 할당해 별도의 공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저소득 소외계층 별도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정되며 이 가운데서도 특히 고아 및 조손가족 출신, 농어촌 가구, 혼혈인, 의상자 등 형편이 어렵지만 법적, 제도적 취업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출신이 주된 대상이다. 한전은 구체적 지원요강과 전형 절차를 7월 초순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전에는 지난해 말 현재 전 직원의 2.2%수준인 450명의 장애인과 7.7%인 1천566명의 국가보훈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다.

한전은 “소외계층 젊은이들이 자기개발 노력을 통해 스스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준 완화

전근, 전학, 질병 요양 등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기준이 완화됐다.

즉, 3년이상 보유(서울 등은 2년 거주요건 추가)하지 않더라도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종전에는 1년이상 거주한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주택 매도자로 제한됐으나 거주 1년미만 시점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지속되는 한 1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06년 1월부터 직장 부근인 서울에서 집을 사 거주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2006년 10월에 전근 명령을 받는 경우 종전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KTX로 통근하면서 1년 거주 요건을 채운 뒤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처럼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뉴스)

100대 기업 CEO 평균 모델은

57세, 경기고·서울대 출신

국내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전형은 57.3세이고 서울에서 태어나 경고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입사 후 대표이사 되기까지 22.3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 CEO 가운데 광주·전남출신은 7명이었으며, 더욱이 지역 대학 출신은 전남대 1명에 불과했다.

경영전문지 월간 현대경영은 100대 기업 CEO 138명을 조사한 결과 CEO들의 평균 나이는 57.3세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81명(58.7%)으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44명(31.9%), 40대가 11명(8%), 70대와 30대가 각각 1명이었다고 3일 밝혔다.

출신지역은 서울이 4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18명), 경북(14명), 충남(10명), 대구·부산·인천(각 7명), 경기(6명), 전북(5명), 광주(4명), 전남(3명), 강원·충북(각 2명), 제주 1명 등이었다.

광주·전남 출신은 7명

대표이사 22.3년 걸려

광주출신으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오세철 사장, SK건설 손관호 부회장, 하이마트 선종구 사장이었다. 전남출신은 아시아나항공 박찬범 부회장(영광), 삼성토탈 고홍식 사장(고흥), LG텔레콤 정일재 사장이었다.

출신대학은 서울대 52명(37.7%), 고려대 26명(18.8%), 연세대 17명(12.3%), 한양대 10명 등 서울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지방대 출신 CEO 14명(10%)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오세철 사장(전남대 화과)이 유일했다.

출신고교로는 경기고(19명), 경북고(12명), 서울고(9명) 등에 이어 지역에서는 광주일고가 5명, 광주고가 1명이었다.

100대 기업 CEO들의 당해 기업, 또는 그룹 재직기간은 평균 27.6년이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주택신보기금 출연요율 7월부터 인상

7월부터 금융기관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의 범위가 현행 ‘주택자금대출’에서 ‘주택건설자금, 주택구입·임차자금, 중도금대출’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고 출연요율도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0.3%로 상향 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또 변동금리 주택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현행 최고 연 0.165%에서 연 0.3%로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5월은 연말정산 ‘제2의 기회’

중소세 신고때 신청 가능

지난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근로자라면 5월 한달은 연말정산을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수로 제출하지 못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분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찾아가 공제신청을 하면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총급여-중소세 등공제)이 1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가 연간 근로소득액 100만원(총급여 기준 700만원)이하의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해 5월 중소기업 신고 때 추가 신청한다면 최고 6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환급분을 수령할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공제항목 명세서)과 함께 누락분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만약 5월 중소기업 신고 때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03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한·중·일 떡 한자리에 3일 떡의 날을 맞아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주최로 서울 한국전통음식연구소 전실에서 열린 제5회 전국 향토 떡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표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빚은 각 국의 전통떡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 3년내 17조 육박

올해 13조7천억 2010년 16조7천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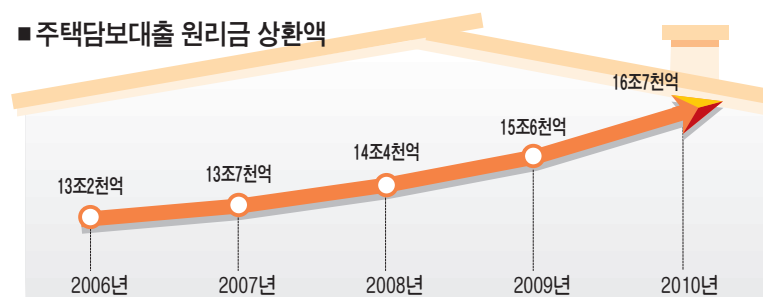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는 올해보다 3조원 늘어난 1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급증한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수가 2009년에 걸쳐 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이 끝나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데 따른 것이다.

3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제9호)’에 따르면 국내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걸쳐 기간이 만료되는 총 대출액은 올해 19조5천억원에서 2008년 21조8천억원에서 2009년 48조6천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가

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도 지난해



13조2천억원에서 올해 13조7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08년 14조4천억원, 2009년 15조6천억원, 2010년 16조7천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크게 증가한 분할 상환대출이 2009년부터 상환수 걸쳐 기간이 끝나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원리금 부담이 커지게 되면 가

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도 지난해

2005~2006년 7~8% 수준에서 2010년에는 9% 중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이 비율은 7.78%로 미국(7.0%)이나 일본(4.7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20년 만기, 3년 걸쳐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1억원(연 6.0%)을 대출받을 경우 걸쳐 기간에는 월 50만원만 이자로 내면 되지만 걸쳐 기간이 끝나면 원리금이 월 78만3천원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다.

/장필수기자 bungy@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Position, Salary/Requirements, Employment Type,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세일미디어, 한국인포에이티브, 미루, etc.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